

특별기획

원광대, 1학과 1기업 창업 추진

창업지원 프로그램·인센티브 제공 학내 도전적 창업문화 조성

군산시의회 추경예산 확정 27건 부의안건 처리 회기 마감

군산시의회(의장 진희완)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을 448억2400만원(4.8%)이 증액된 9,796억3100만원으로 최종 확정하는 등 27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감했다.

시의회는 지난 20일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 심도 있는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예결위에서 결정된 제1회 추경예산을 당초 9,348억700만원보다 448억2400만원(4.8%)이 증액된 9,796억3100만원으로 의결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7,450억2000만원보다 448억2400만원(6.0%)이 증가된 7,898억4400만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인 1,897억8700만원보다 140억5000만원(7.4%)이 증가된 2,037억9200만원으로 각각 의결됐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중학생공부법 특강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은 대학 전형 유형별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자녀의 소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다.

시는 오는 25일 저녁 7시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키움에듀 진영호 대표의 '중학생 공부법'을 주제로 하는 '우리아이 공부 방법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중학생 학부모가 알아야 할 전략적 입시 준비의 필요성과 대학입학전형의 취지와 종류,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해, 진로와 진학의 연계에서 올바른 로드맵 작성 등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번 특강에 관심있는 학부모와 학생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군산=문정곤기자

시는 오는 25일 저녁 7시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키움에듀 진영호 대표의 '중학생 공부법'을 주제로 하는 '우리아이 공부 방법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중학생 학부모가 알아야 할 전략적 입시 준비의 필요성과 대학입학전형의 취지와 종류,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해, 진로와 진학의 연계에서 올바른 로드맵 작성 등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번 특강에 관심있는 학부모와 학생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대표관광지 브랜드이밍 B개발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군산시는 지난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군산대표관광지 브랜드이밍 및 B개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군산시장을 비롯해 관계 부서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수행과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지난 3월 착수한 이번 용역은 전북도의 1시군 1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군산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200만 관광객 유치에 돌입한 군산 관광의 이미지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최종 결정되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관광 콘텐츠 전반에 걸쳐 활용할 계획으로 이번 중간보고회를 토대로 군산만의 브랜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40개 팀 육성 7,000만원 지원 예정

학내 창업포토 조성하고 창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1학과 1기업 창업을 추진하고 있는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학내에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창업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교직원과 재학생을 지원 대상으로는 하는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선정된 팀은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받고, 특허출원 및 정부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교내 창업 분위기 확산과 더불어 거점 창업센터 대학으로서의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015년에는 1학과 1기업창업에 의류, 스마트 용기 & 술라 텀블러, 다나와 겹대기 반려동물용 위한 맞춤형 기능성 수제간식, 전북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 및 판매, 증

류식 고무마 소주, 원 365 피트니스, 펠트 DIY북, 천연 소재를 이용한 미용 소모품 및 화장품 인형의상 및 패션 소품 주얼리 디자인 및 제품 개발, 캠퍼스 포탈, 원형 콘서트 등 12개 학과에서 총 13개 팀이 선정됐다.

선정 팀에는 팀당 약 2백만 원이 지원되며, 2015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모의창업을 진행한 결과 13개 팀 중 사업자 등록 3개 팀, 특허출원 3건, 상표출원 7건, 디자인출원 1건의 성과로 나타났다. 또한 각 팀은 사업기간 동안 멘토링과 워크숍, 경진대회, 열린 만남의 광장, 청년창업 로드쇼 W 등에 참여해 마일리지 적립을 통한 창업 장학금을 지원받았다.

지난해 1천5백만 원이 지급된 창업 장학금은 올해 6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실전 창업(아이템사업)에 선정된 팀의 경우 평가에 따라 팀당 최고 7천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유망아이템을 가진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동아리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20개의 창업동아리를 선발해 총 5,900만 원을 차등 지원하고, 무상으로 제공되는 공간에서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지원해 시제품 제작을 마치고 목표했다. 그중 사업자 등록 3건, 특허출원 6건 등의 실적과 함께 동아리 HERBIT은 약 1,400만 원의 매출을 비롯해 OEM생산, TV출연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 밖에도 동아리 PM(특산물 가공 식품 개발)의 2개 팀에서 소액 매출과 위탁판매가 진행되고 있으며, 교내 창업 홍보를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동아리 다관대에서는 학생들 간에 이루어지는 중고 물품 거래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원광대는 2016년에 1학과 1기업창업 및 창업동아리 활동을 통해 총 40개 팀을 육성할 계획이며, 팀당 지원금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익산=장영원기자



익산경찰 중앙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확대 발대

익산경찰서(서장 이동민) 중앙지구대(대장 김용대)는 "최근 생활안전협의회장이 이윤규 및 총무 장영원 등 회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안전협의회 확대발대식을 개최하는 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생활안전협의회는 지역내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활동과 질서를 위한 각종 의견수렴 및 건의하는 경찰 협력단체로, 그간 중앙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는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 취약지역 순찰 각종 캠페인 참여,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봉사활동 등 우리 마을의 생활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많은 봉사활동을 해왔다.

이날 행사는 각종 치안활동에 시민 참여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생활안전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신규회원 9명을 새로이 위촉하고, 이 자리에서 김용대 중앙지구대장은 "기밀한 민·경 협력체 유지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최상의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한 익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생활안전협의회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사를 표했다. /익산=장영원기자

군산해경 VTS, 해상교통안전 지킨다

경비합정간정보교신 정례화하고 위기상황 대처 훈련 지속

바다 위 선박 안전은 해상교통관제센터가 지켜보고 해경합정이 행동하는 안전한 전북 바다 만들기가 한창이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 Vessel Traffic Service)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이 명칭은 바다에서 해상교통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중요 국가기관이다.

군산해경은 VTS와 경비합정 간 선박안전운항 정보교신을 정례화하고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군산 VTS는 항행안전 정보제공, 해상교통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맡고 있는 서해해경본부 예하 기관으로 지난 2014년 11월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前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기준 군산항을 통해 입·출항 및 이동한 선박은 모두 45,758척으로 VTS에서는 하루 평균 약 130척의 선박을 모니터링하고 200척 선박과 안전교신을 실시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상안전의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 지난 8일 군산 내항에서 음주로 인해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선박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경비합정과 교신해 음주운항 선박을 잡아내는가 하면, 조타기 고장으로 임박과 충돌하는 선박을 관제사의 침착한 대응으로 막아내기도 했다. 선박용 레이더의 경우 해당 선박을 중심으로 인근 선박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반해 VTS의 경우 구역 해상 교통 전반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해상교통관제센터(VTS : Vessel Traffic Service) 바다에서 해상교통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중요 국가기관이다.

익산시,도심부 교통기반구축 공모선정국비 20억원 확보

익산시는 익산경찰서(서장 이동민) 중앙지구대(대장 김용대)는 "최근 생활안전협의회장이 이윤규 및 총무 장영원 등 회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안전협의회 확대발대식을 개최하는 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생활안전협의회는 지역내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활동과 질서를 위한 각종 의견수렴 및 건의하는 경찰 협력단체로, 그간 중앙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는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 취약지역 순찰 각종 캠페인 참여,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봉사활동 등 우리 마을의 생활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많은 봉사활동을 해왔다.

이날 행사는 각종 치안활동에 시민 참여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생활안전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신규회원 9명을 새로이 위촉하고, 이 자리에서 김용대 중앙지구대장은 "기밀한 민·경 협력체 유지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최상의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한 익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생활안전협의회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사를 표했다. /익산=장영원기자

익산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선정 국비 15억원 확보

익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장애인 편의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5억원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국비 확보로 시는 익산시종합경기장(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에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전용 관람 공간 조성, 이동통로 및 계단출입 개선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강한다. 특히 2018년 제99회 전국체전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큰 힘을 얻게 되었다.

이번 사업 선정은 전국체전 T/F팀 임광영 주무관이 발로 뛰어 얻어낸 성과로, 임 주무관은 올해 초부터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수차례 오가며 관계자들을 만나 익산시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효과성 등을 설득했다.

최신배 체육진흥과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제99회 전국체전 준비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15년 만에 전북에서 익산시를 주 개최로 하는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기자

문제는 싱크대다

Why? "씨서리"를 사셔야 하는가

- 싱크대 배수통 오래 쓰면 딱딱하고 막힘
- 스물~스물 올라오는 음식물과 불쾌한 냄새
- 오래 사용한 싱크대 배수구를 속속 하고 싶다면
- 믿을수 있는 국산, 특허 제품
-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설치, 사용 가능

(주) 코포스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각 지역 총판 및 딜러모집 (여성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광고 게재기간동안 공동구매시 설치비 30%할인 행사합니다.

코포스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 www.seeseri.com / www.씨서리.com을 방문하시면 상품정보, 각종동영상, 자세한 자료, 사업의 비전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 이병기 010-5628-1256. see8709@naver.com

"씨서리" 실제 설치!

정소액 [팩스]

팩스: 010-5628-1256

팩스: 010-5628-1256

팩스: 010-5628-1256

팩스: 010-5628-1256